

함안지역 대표음식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

강남년 · 김창순 · 문혜경*

국립창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

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독특한 지역 문화를 관광자원화하려는 노력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.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함안군의 대표음식을 개발하기 위해 함안군 거주자 총 550명(일반인 344명, 음식업종사자 206명)을 대상으로 향토음식과 대표음식 개발에 대한 의견 등 기초 자료를 2004년 5월 24일에서 6월 18일에 걸쳐 조사하였다. 향토음식에 대한 정의에 관해 일반인은 '그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음식(127명, 37.2%)', '특산재료를 조리한 그 지역만의 음식(112명, 32.9%)'이라고 응답한 수가 많은 반면 음식업종사자는 '여러 지역에서 만드나 조리법이 그 지역 특색을 띤 음식(68명, 33.2%)', '식재료에 관계없이 지역상황이 반영된 음식(56, 27.3%)'으로 응답한 경우가 많아 음식업종사자에 비해 일반인의 향토음식에 대한 생각의 범위가 유의적으로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. 함안 향토음식의 시식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중 314명(57.9%)만이 '먹어본 경험이 있다'고 답하였는데 함안군의 알려진 향토음식이 적을 뿐 더러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으로 사료되었다. 전체 응답자중 502명(91.9%)이 '향토음식을 계승·발전시켜야 한다'고 응답하였고, 함안 대표음식은 '토속적인 맛을 지닌 음식(232, 2.6%)'이나 '함안 특산물을 재료로 만든 음식(173명, 22.8%)'으로 개발하여야 한다고 답하였다.

* 담당자 : 문혜경

* Tel : 055)279-7486

* 휴대전화 : 016)795-7151

* Fax : 055)281-7480

* E-mail : hkmooon@changwon.ac.kr